

新羅金氏遺事

新羅第四王(姓昔氏諱脫解)三年庚申(東漢明帝永平三年〇一云中元六年誤矣中元盡二年而已)八月四日匏公夜行月城西里見大明光於始林(一作鳩林)中有紫雲從天垂地雲中有黃金櫃掛於樹枝光自櫃出亦有白鷄鳴於樹下以狀聞於王駕行其林開櫃有童兒臥而即起如赫居世之事故因其言以闕智名之闕智鄉言小兒之稱也抱載還闕鳥獸相隨喜躍踰王擇吉日冊位太子後讓故婆娑即王位因金櫃而出乃姓金氏闕智生勢漢勢漢生阿都阿都生首留首留生郁部郁部生俱道(一作仇刀)俱道生未鄒未鄒即王位新羅金氏自闕智始

新羅第四代王(姓은 昔氏요 諱는 脫解)三年庚申(東漢明帝의 永平八年이다. 혹 中元六年이라고 했으나 잘못된 기록이다) 中元은 二年으로 마쳤기 때문이다(八月四日)에 匏公이 밤에 月城西里로 가다가 보니 밝은 빛이 始林(鳩林)이라고도 했다(가운데 비치고 붉은 구름이 하늘에서 땅에 연하고 구름 가운데 黃金으로 된 櫃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으며 밝은 빛이 櫃에서 나오고 또 흰 담이 나무 밑에서 울거늘 임금께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그 숲에 행차하여 櫃를 열어보니 아이가 누웠다가 곧 일어나는데 赫居世의 故事와 같은지라 인하여 闕智라 이름하니 闕智는 鄉間에 어린아이를 稱하는 말이다. 안고 大闕로 돌아오는데 새와 짐승들이 따라오며 뛰놀고 춤추는지라 임금께서吉日을 가려 太子로 冊封했는데 뒤에 사양하므로 婆娑가 王位에 올랐고 金氏에서 나왔으므로 姓을 金氏라 했다.

闕智가 勢漢을 낳았고 勢漢이 阿都를 낳았으며 阿都가 首留를 낳았고 首留가 郁部를 낳았으며 郁部가 俱道를 낳았고 俱道가 未鄒를 낳았으니 未鄒가 王位에 올랐고 新羅의 金氏는 闕智로부터 시작되었다.

三國史에는 脫解王九年乙丑 漢나라 永平八年 봄 三月이라 했고 또 이르기를 鷄恠가 있었으므로 始林를 鷄林으로 고쳤고 인하여 國號로 삼았으며 太子 康造의 女로 妻를 삼아주었다 했으니 이분이 摩貞夫人이다. 新羅史 및 諸本에는 脫解王이 闕智로 아들을 삼았다 했고 太子 康造가 王位를 繼承하지 않고 婆娑王이 即位했다 했으니 太子로 冊封되었으나 사양하므로 婆娑王이 即位했다 함은 史義에 맞는 듯하다. 또 三國史와 東國通鑑에는 九年乙丑이라 했으나 遺事에 만은 年月日이 明記되었으므로 取하여 썼다.

살펴보면 옛날 帝王이 처음 날 때에 후 범인보다 다름이 있으니 무지개가 神母를 들러주어 伏羲氏를 낳았고 簡狄이 알을 삼키고 契(상)을 낳았고 姜嫄이 큰 발자국을 밟고 棄(후稷의 兒名)를 낳았으며 龍과 大澤에서 고집하여 漢沛公을 낳았고 新羅에 赫居世는 辰韓 始林가운데 내려와 新羅에 처음 임금이 되었고 檀君은 太白山 檀木 밑에서 태어나 朝鮮 최초의 임금이 되었으며 高句麗의 朱蒙과 駕洛國의 首露는 或 알 가운데에서 나왔으며 或 먼 바다로부터 왔으니 대개

天地의 造化로 運氣가 같지 아니함이로다.

朱子가 말씀하기를 人道없이 냥은 이를 或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先儒들이 의심했으나 張子말씀은 天地가 開闢한 始에 먼저 사람이 있지 않았을 것이요 사람은 곧 化해서 냥은 것이라 하였으니 대개 天地의 기운으로 냥은이라 하였다. 蘇氏가 말씀하되 물건도 범상한 물건과 다른 것은 天地의 기운을 얻어 그 냥음이 후 다르니 祥麟의 냥음이 犬羊과 다르고 神龍의 냥음이 漁鱉과 다르니 물건도 그러하거든 神人의 냥음이 凡人보다 다름이 무엇이 괴이하다 하리오 하였다.

太輔公誕降始林遺墟碑銘 并序

新羅無史非無史也由世之人不讀也新羅傳朴昔金三姓立國爲千年鷄林即始林新羅金氏之始祖諱闕智誕生之地也屬嶺南之慶州世之以金爲氏者皆以闕智爲始祖東人至今傳其地而其世次沿革之載於史者或未詳焉今因碑銘略識之初脫解王時聞始林鷄鳴得金櫃闕而視之有小男兒也王乃收養之名曰闕智賜姓金氏更名其林曰鷄林闕智六世孫味鄒娶助賁王女王無子味鄒遂代立號爲尼師今自味鄒歷奈勿實聖至訥祇是爲麻立干教民服牛車訥祇薨子慈悲立慈悲薨子炤智立始開市肆以通四方之貨炤智薨子智證立禁人殉葬命州郡勸農始用牛耕定國號曰新羅改方語尼師今麻立干稱王制喪服王薨諡智證諡法始此子法興王立頒律令制百官公服稱年號曰建元歷真與真智至真平王無子女善德王立遣子弟於唐請入國學善德薨真德王立真平母弟國飯女始倣唐制爲官服遣使告破百濟王自製太平頌織錦文以獻高宗嘉之始行中國年號真德薨太宗武烈王立真智孫與唐將蘇定方共滅百濟武烈薨子文武王立令婦人服中國衣裳文武王薨神文王立遣使入唐請禮典并詞章則天后令寫吉凶要禮採文詞涉於規誡者勒成五十卷賜之自神文王歷孝昭王至聖德始造漏刻歷孝成景德惠恭宣德至元聖王定讀書出身法自元聖王歷昭聖王哀莊王憲德王僖康王閔哀神武文聖憲安景文憲康定康真聖孝恭至敬順王以國讓於高麗王子以爲不可王曰寡人孤危勢不能全使無辜之民肝腦塗地吾不忍也乃遣侍郎金封休上書稱臣國遂絕金氏歷三十八王凡五百八十七年蓋承二氏創守之後享國最長其禮樂文物自此稍稍起矣自新羅始通唐時中國史官之法已久矣而東方僻陋無文章其事多不傳高麗金當軾撰羅史其書略具而學者不專治東史又其板本剋毀行于世者幾希君子真懼焉公轍之按嶺南也叅奉金成杰自慶州來謁請鷄林紀蹟之文善哉其推本而慮遠也地固可傳也而事有大於地者烏可以不書也孔子生周曰丘殷人也自以爲微子之後也又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此文獻不足故也今金氏之散在四方者無慮千百家而皆以新羅爲祖與孔子之於殷無異也豈可言夏殷之禮而杞宋之文獻不足徵也後有善讀此碑者庶幾取以補史之闕也銘曰

苑彼鷄林興王之基孰敢不敬我銘在碑

純祖癸亥(一八〇三)二月 立

外裔 嘉善大夫奎章閣直提學慶尚道觀察使 宜寧 南公轍 撰
通政大夫慶州府尹 朔寧 崔獻重 書

新羅에 史記가 없다하나 史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史記를 읽지 아니함이니라. 新羅는 朴氏 昔氏 金氏 三姓이 서로 傳하여 나라를 세운지 千年이 되었고 鷄林은 곧 始林이니 新羅 金氏의 始祖인 諱 閔智가 誕生한 곳이다. 지금은 嶺南 慶州에 屬했으니 世上에 金으로 姓한 이는 閔智로 始祖를 삼으니 東國의 사람들이 始祖가 誕生하신 곳이라 傳해 오지만 그 世次와 沿革은 未詳한지라 이제 碑銘을 대략 기록한다. 처음 脫解王때에 始林에서 諱의 우는 소리를 듣고 金櫃를 얻어 열어보니 그 속에 사나이가 있거늘 王이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閔智라 하고 姓을 金氏라 하고 始林을 고쳐 鷄林이라 했다. 閔智의 六世孫 味鄒가 助賁王의 女에게 장가들었고 沾解王이 無子하므로 味鄒가 이어 王이 되니 號를 尼師今이라 했고 味鄒王부터 奈勿王과 實聖王과 訥祗王에 이르러 號를 麻立干이라 했고 처음으로 백성에게 牛車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訥祗王이 薨하매 子 慈悲王이 王이 되고 慈悲王이 薨하매 子 炤智王이 王이 되어 처음으로 市場을 設立하여 四方의 生産한 物貨를 相通토록 하였다. 炤智王이 薨하고 子 智證王이 王이 되어 殉葬法을 없애고 州郡에 命을 내려 農사를 勸하고 소로 발가는 것을 가르치고 國號를 新羅라 定하고 方語인 尼師今과 麻立干을 고쳐 王이라 하고 喪服制度를 마련했다. 王이 薨하매 諡號를 智證이라 하니 諡法이 이때부터 始作되었다. 子 法興王이 임금임이 되어 律令을 펴고 百官의 公服제도를 만들고 年號를 建元이라 했다. 眞興王과 眞智王을 거쳐 眞平王에 이르러 無子하니 女 善德王이 임금임이 되어 子弟를 唐나라에 보내어 國學에 들어가기를 請했다. 善德王이 薨하매 眞德王이 임금임이 되니 女 善德王의 弟 國飯의 女다. 王이 비로소 唐나라 제도들을 모방하여 官服을 만들고 使臣을 唐나라에 보내어 百濟攻伐하기를 請했다. 王이 스스로 太平頌을 만들어 비단에 무늬로 짜서 唐나라에 獻納하니 唐高宗이 기뻐하였다. 비로소 中國年號를 썼으며 眞德王이 薨하매 太宗 武烈王이 임금임이 되니 眞智王의 孫이며 唐나라 장수 蘇定方과 함께 百濟를 滅하였다. 武烈王이 薨하고 子 文武王이 임금임이 되어 婦人들로 하여금 唐나라 국민과 같이 中國衣裳을 입게 하였다. 文武王이 薨하고 神文王이 임금임이 되어 使臣을 唐나라에 보내 禮典과 詞章을 請하니 則天后가 吉凶要禮와 規誡에 맞는 文詞를 가리어 五十卷을 만들어 下賜하였다. 神文王과 孝昭王을 거쳐 聖德王때에 이르러 비로소 漏刻(물로 만든 時計)을 만들었다. 孝成王과 景德王과 惠恭王과 宣德王을 지나 元聖王에 이르러 學文을 닦은 뒤에 出身하는 法을 定하였다. 元聖王부터 昭聖王 哀莊王 憲德王 僖康王 閔哀王 神武王 文聖王 憲安王 景文王 憲康王 定康王 眞聖王 孝恭王을 지나서 敬順王에 이르러 나라를 高麗에 遜讓하매 王子 鎰(麻衣太子)이 不可하다 하거늘 王이 말씀하되 寡人이 孤危하여 형세가

은전하지 못하니 無辜한 百姓들로 하여금 肝腦塗地(兵亂에 殺戮 當하는 일)함을 내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고 侍郎 金 封休를 高麗에 보내어 글을 올리고 臣이라 稱하니 國祚가 드디어 끊어졌다.

金氏가 三十八王을 지냈으니 歷年이 五百八十七年이다. 대개 朴昔二氏의 創立한 뒤를 이어 나라 지킴을 제일 오래 했으며 그 禮樂文物이 점점 振興되었다. 新羅때에 처음 唐나라와 通하니 中國에는 史官法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東方이 僻陋하여 文章이 없으므로 事實을 전하지 못함이 많았다. 高麗의 金富軾이 新羅史를 編纂하여 그 글이 대략 具備되었으나 배우는 사람이 東國史記만을 專攻하지 않았고 또 그 板本이 오래돼 自然毀損되어 세상에 알려짐이 드무니 君子 甚히 애석하게 여겼다. 公轍이 嶺南道伯으로 赴任하자 奉 金成杰이 慶州에서 내려와 나에게 鷄林紀蹟文을 지으라 하니 참으로 착한 일이로다. 그 근본을 推究하고 먼 뒷일을 생각함이며 땅도 可히 전하려니와 사적이 땅보다 더 많이 있으니 어찌 쓰지 아니하라. 孔子는 周나라에서 태어 났으니 말끔하기를 나는 殷나라 사람이라 했으니 스스로 微子의 後裔가 됨으로서였다. 또 말씀하되 夏나라 禮를 내가 말하지만 杞를 증거할 수 없으며 殷나라 禮를 능히 말하지만 宋을 증거할 수 없다 했으니 이는 文獻이 不足한 때문이다. 이제 金氏가 四方으로 흩어져 사는 이가 몇 千, 百家口가 되지만 新羅로 祖宗을 삼으니 孔子께서 殷나라 말씀하던 것과 다름이 없는 듯하나 어찌 夏나라와 殷나라를 말하면서 杞와 宋의 文獻이 증거할 수 없다고만 말하리오. 뒤에 이 碑文을 잘 읽는 이가 있으면 거의 史紀의 闕漏한 것을 補充할 수 있으리라. 銘하노니,
성하도다 저 鷄林이여 興王하던 터전일세 누가 敢히 公경하지 않으리. 나의 銘文을 碑에 새기노라.

本源世系

始祖는 太輔니 諱는 闕智 姿貌가 奇偉하고 聰明하며 智略이 많았다. 三國史에 있다. 다.

配는 摩貞夫人 昔氏니 父는 角干 康造 新羅第四代王 脫解의 子다. 夫人이라 함은 新羅時代에 后妃와 王室婦人의 尊稱이다. 다.

二世는 居西干이니 諱는 勢漢 世系에 勢字는 熱字로도 되어 있다. 이다.

三世는 波干이니 諱는 阿都 都字는 道字로도 썼다. 다.

四世는 角干이니 諱는 壽留 史記에는 壽字를 首字로 썼고 世系에는 首字를 壽字로 썼다. 다.

五世는 角干이니 諱는 郁輔 輔字는 甫字로도 썼고 部字로도 썼다. 다.

六世는 葛文王 新羅初에 追尊한 王號이다. 으로 追封된 波珍滄이니 諱는 俱道 仇道 또는 仇刃라고도 하였다. 다.

妃는 述禮 一作 生乎 夫人朴氏니 新羅第六代王 祗摩의 子 葛文王 伊漆 漆은 柒 또는 非라고도 했다. 의 女요

新羅第十三代王 未鄒를 誕生하였다.

嗣 新羅第十三代王 未鄒 序次가 未詳하므로 一 二 三部號를 쓰지 않았고 男이라 쓰지 않고 嗣라 씀은 王을 높이는 뜻이다. 다.

嗣 葛文王에 追封된 角干이니 諱는 末屈이다.

男 角干이니 大西知 三國遺事와 三國史에는 伊滄大西知라 했다. 配는 禮生夫人昔氏니 阿干 登保의 女요 新羅第十八代王實聖을 誕生하였다. 다.

事實 新羅第八代王 諱 阿達羅 二十年癸丑(一七三) 봄 正月에 仇道로 波珍滄을 삼았고 第九代王 諱 伐休 二年乙丑(一八五) 二月에 百濟가

五) 二月에 波珍滄 仇道 一吉滄 仇順을 左右軍主를 삼아 召文國(義城)을 征伐했고 五年(一八八) 二月에 百濟가 軍사를 일으켜 母山城(鎭川)을 쳐들어오므로 王이 波珍滄 仇道로 하여금 軍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를 막게 하였다.

六年(一八九) 가을 七月에 仇道가 百濟軍사와 狗壤에서 싸워 크게 이기고 五百餘名을 俘虜하였다. 七年(一九〇) 가을 八月에 百濟가 서쪽 邊境의 圓山鄉(醴泉)을 습격하므로 仇道가 軍사를 거느리고 蛙山(報恩)까지 追擊하다가 百濟에게

敗하였다. 이로 인하여 仇道の 벼슬을 깎아 岳谷(軍威)城主로 삼았다. 三國史에 있다. 七世는 葛文王에 追封된 角干이니 諱는 末屈 末仇라고도 했고 世系圖에는 未屍屈이라고 하였다. 이다.

妃는 休禮夫人金氏니 第十七代王 奈勿을 誕生하였다.

一嗣 新羅十七代王 奈勿이다。

事實 新羅第十四代王 儒禮八年辛亥(二九一) 봄 正月에 未仇로 伊伐滄을 삼았는 데 未仇는 忠良하고 智略이 많으므로 王이 항상 찾아서 政사를 물었다.

新羅國金氏王世系譜

新羅第十三代大王의 諱는 未鄒 味鄒 또는 未祖 또는 未照 또는 未炤 또는 未召 다。

壬午 蜀漢後主 景輝五年이요 西紀(二六二)年이다。 年에 新羅第十二代王 昔氏 諱 沾解 理解 또는 詰解 라고도 했다。 의 뒤를 이어

王 新羅第十二代王의 諱 沾解가 十四年辛巳(二六一)十二月二十八日에 崩하니 아들이 없으므로 나라사람들이 未鄒를 세워 王으로 삼았다 王은 세상에 빛나는 紫纓으로 聖德이 있었으므로 理解의 王位를 물려 받았다. 이 되

었고 二十三年甲辰 晉武帝의 太康五年 (二八四)이다。 에 崩하였다。

派系는 太輔金閼智의 六世孫이요 父는 葛文王 俱道요 母는 述禮夫人이다。

后妃는 光明王后 昔氏니 新羅十一代王 助賁 諸賁 또는 諸贄 이라고도 했다。 의 女다。

陵墓는 慶州府西쪽 皇南里니 陵號는 大陵이요 뒤에 竹長陵이라 했다。 新羅第十四代王 朴氏 儒禮王十四

年丁巳(二九七)에 伊西古國(淸道)이 金城(宮城)을 踰어들어오므로 아군이 맞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 忽然 이상한 云사가 甍으로써 귀거리하고 와서 아군을 도와 적군을 殲과하고 문득 간 곳을 알지 못할러니 뒤에 보니 甍이 未鄒 王陵에 쌓여 있으므로 나라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先王의 陰兵을 보내어 도움이라 하더라. 이로 인하여 이 陵을 竹 長이라 하였다。

無嗣하였다。